

## 2) 이만과 연



### 이 동화는요

암자드는 이웃집이 아파치 헬기의 공격을 받는 장면을 목격하고, 아파치 헬기에 돌멩이를 던집니다. 아파치 헬기의 공격 장면과 그 집에 살고 있던 이웃 아저씨를 떠올리며 공포를 느끼고, 아파치 헬기가 자신을 공격하는 악몽을 꾸니다. 다음날 암자드는 공포감으로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암자드는 자신을 걱정하여 집으로 찾아온 친구들과 함께 나뭇가지와 종이로 '팔레스타인 국기'를 그려서 연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파치 헬기가 나타나자 그 연을 하늘 위로 날립니다. 하늘 위에는 아이들의 놀이를 위한 연과 군인들의 전쟁을 위한 비행기가 동시에 날게 됩니다. 아이들의 연이 아파치 헬기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본 암자드는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이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은 전쟁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고, 평화를 찾고 지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겪은 고통이나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전쟁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세계의 여러 분쟁 지역과 그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겪는 일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자신이 겪은 고통이나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암자드는 왜 아파치 헬기를 향해 돌을 던졌나요?
- 암자드가 학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암자드와 친구들은 무엇을 만들었나요?
- 아파치 헬기가 나타났을 때 암자드와 친구들이 연을 날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 알아봅시다.

### - 팔레스타인에 대해 알아 봅시다.

#### Tip!

팔레스타인(Palestine)은 지중해와 요르단 강 사이와 그 주변 지역을 일컫는 여러 역사적인 지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리적 정의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지만, 대체로 현재의 이스라엘 땅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구역(서안 지구 및 가자 지구) 일대를 가리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자리잡고 있는 지중해 동안, 즉 레바논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시나이반도에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면적은 대략 2만 6,000km<sup>2</sup>이며, 특별한 천연자원은 없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인 동부는 황무지가 전개되어 있지만, 지중해 연안인 서부는 경작지 및 목초지대가 있어서 농축산물이 생산됩니다. 언어로는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구역에서는 아랍어를 사용하며, 영어도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종교는 이슬람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독교 신자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UN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138개국의 찬성으로 팔레스타인은 비회원옵서버단체(non-member observer entity)에서 비회원옵서버국가(non-member observer state)로 승격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이 더 이상 단체(entity)가 아니라 하나의 주권국가(state)로 공식 승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들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제소할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팔레스타인이 UN의 정회원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 -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 Tip!

영토 분쟁(領土紛爭, territorial dispute)은 일정한 영토의 주권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 사이의 국제 분쟁을 말합니다. 영토 분쟁은 일반적으로 육지가 대상이 되지만, 강과 바다 등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토 갈등(領土葛藤) 또는 영토 문제(領土問題)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영토분쟁은 그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국가 사이에 국경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국경 분쟁(예: 카슈미르 분쟁), 타국의 영토 일부 혹은 전부를 무력으로 점령하여 발생하는 강제 점령, 사실상 분리 독립했으나 과거에 속했던 국가가 분리독립을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리독립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고 세계에서 가장 긴 장벽(높이 8m, 길이 680여km)으로 고립시키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경우는 강제 점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휴전' 상태인 한반도 또한, 상대방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분쟁 당사국들이 거의 동일한 영토의 주권을 주장하는 분단 상태로 이 역시 영토 분쟁의 한 유형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영토 분쟁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남기는데, 특히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 체험해봅시다.

-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로 연을 만들고 평화를 바라는 편지를 적어 날리거나 전시하여 봅시다.
- 평화의 염원을 담아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거나 전시하여 봅시다.
- '왜 우리에게는 그들을 혼내 줄 비행기가 없는거야?' 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팔레스타인 또는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봅시다.
- 엮어 읽기 : 토미 웅게러(Tomi Ungerer) 『곰인형 오토』
- 베르나르 상바즈 지음, 바루 그림 『나는 빈 라덴이 아니예요』



## 참고자료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62a599b5ae3c452ba883db221fc3efb9>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한 2012.11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nanum.com/site/peace\\_act/24295](http://www.nanum.com/site/peace_act/24295)
- 폭격으로 파괴된 학교 건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minibabo/15677156>
-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보기  
<https://blog.naver.com/rappermint/20100947535>